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내 용

1. 개요
2. 평가방법
3. 2017년 주요 평가결과
4. 부문별 평가결과
5. 요약 및 정리

작 성

안지혜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
jihye@kistep.re.kr | 02-589-5240

1. 개요

○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과학기술 부문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가 필요

- IMD, WEF 등은 과학기술을 부문단위 평가에서만 수행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 하부구조의 일부로 평가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음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수(COSTII)를 통해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혁신역량이란 국가가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및 개선을 통해 최종단계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

*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조(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30개 OECD 회원국을 평가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평가 실시

- 올해에는 데이터 가용성이 확보된 OECD 신규 회원국**을 포함하여 총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하기 시작함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2010년 신규 회원국 4개국(이스라엘,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은 데이터 가용성이 확보됨

○ 이번 호에서는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주요결과를 정리·분석

- 우리나라와 주요국 평가결과와 부문별 분석내용을 정리·분석

2. 평가방법

○ 국가혁신체제(NIS)에 기초하여 투입→활동→성과에 이르는 혁신의 전주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

-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란 특정 국가 내에서 새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을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 및 관계의 집합을 말함(Lundvall, 1992)

○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모형은 자원의 투입에서 최종 경제적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 5개 부문으로 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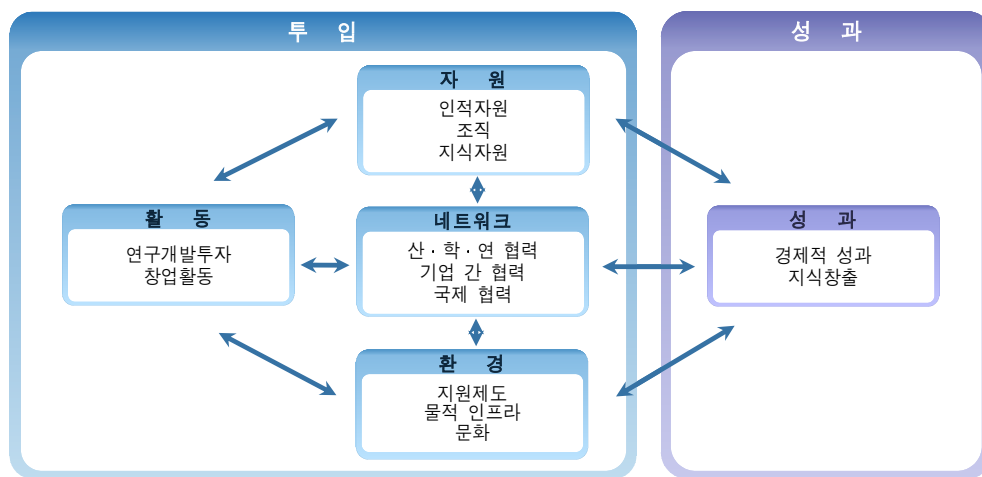
- 평가 모형은 5개 부문, 13개 항목, 31개 지표(정량지표 27개, 정성지표 4개)로 구성

[표 1] 평가지표 구성

자 원	활 동	네트워크	환 경	성 과
◦ 인적자원(3) ◦ 조직(2) ◦ 지식자원(2)	◦ R&D투자(5) ◦ 창업활동(2)	◦ 산·학·연 협력(2) ◦ 기업 간 협력(1) ◦ 국제 협력(2)	◦ 지원제도(2) ◦ 물적 인프라(2) ◦ 문화(2)	◦ 경제적 성과(3) ◦ 지식창출(3)

주) ()안의 수치는 지표 수를 나타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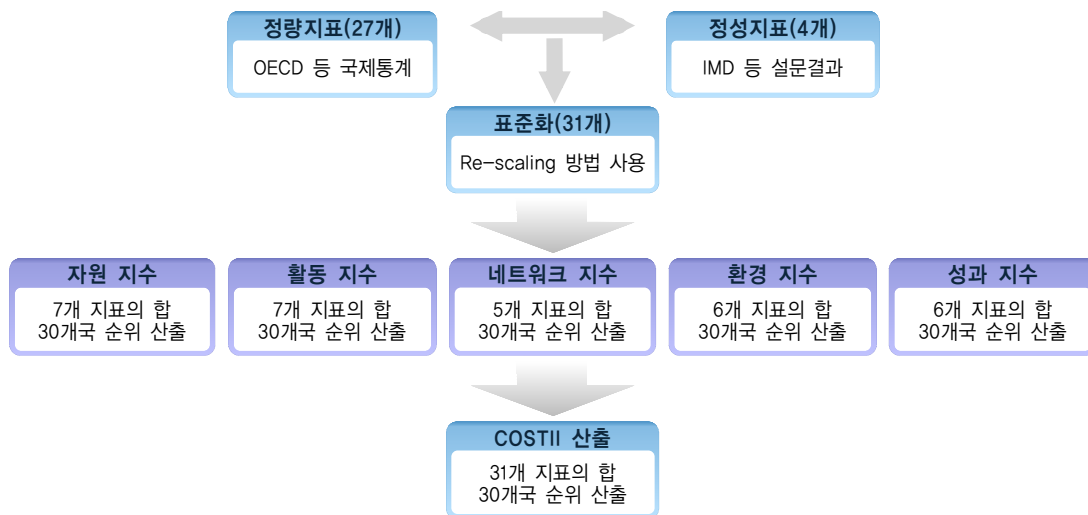


[그림 1] 평가지표의 기본 틀

○ 국가별로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산출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결과 도출

- 31개 지표의 원자료를 수집한 후, 결측치 보정과 표준화 등 과정을 통해 최종 데이터 확정
- ※ 신뢰도 높은 최신 국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전문가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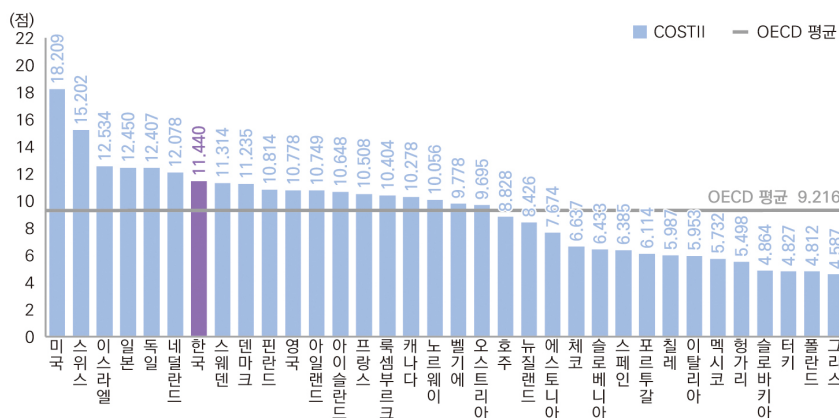
- 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지수를 도출한 후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부문 지수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5개 부문의 지수를 종합하여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도출



[그림 2] 평가지표의 기본 틀

3. 2017년 주요 평가결과

- 미국의 COSTII는 18.209점으로 다른 OECD 국가들과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
 - 신규 평가대상국인 이스라엘이 종합 3위로 선전하였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강소형 국가 다수가 상위권에 포진
 - * 스위스(2위), 이스라엘(3위), 네덜란드(6위), 스웨덴(8위)
 - 최하위 그룹인 그리스(4.587점, 34위), 폴란드(4.812점, 33위), 터키(4.827점, 32위), 슬로바키아(4.864점, 31위)의 COSTII는 5점 미만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17.12

[그림 3] 2017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 COSTII 1위~5위 국가들은 일본(COSTII 4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위 5개 부문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 COSTII 1위~5위 국가의 5대 부문별 혁신역량 지수(OECD 평균 지수) :

미국 : 자원 5.886점(1.422점), 활동 4.930점(2.115점), 네트워크 1.484점(1.248점), 환경 3.034점(2.845점), 성과 2.875점(1.586점)

스위스 : 자원 1.941점(1.422점), 활동 3.372점(2.115점), 네트워크 2.857점(1.248점), 환경 3.831점(2.845점), 성과 3.201점(1.586점)

이스라엘 : 자원 1.689점(1.422점), 활동 4.049점(2.115점), 네트워크 1.888점(1.248점), 환경 3.194점(2.845점), 성과 1.714점(1.586점)

일본 : 자원 2.832점(1.422점), 활동 2.705점(2.115점), 네트워크 1.623점(1.248점), 환경 2.717점(2.845점), 성과 2.573점(1.586점)

독일 : 자원 2.533점(1.422점), 활동 2.826점(2.115점), 네트워크 2.071점(1.248점), 환경 3.202점(2.845점), 성과 1.775점(1.586점)

○ 2017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총 34개국)에서 우리나라는 7위를 차지

- 우리나라 COSTII는 11.440점으로 OECD 평균(9.216점)을 상회

○ 우리나라 5개 부문 중 활동 부문 순위는 3위로 강점인 반면, 환경부문은 23위로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여전히 부문 간 편중이 존재

- 전년 대비 네트워크 부문 순위 하락, 성과 부문 순위 상승, 그 외 부문은 순위가 유지됨

※ (순위 상승) 성과 : 10위 → 9위

※ (순위 유지) 자원 : 6위 → 6위, 활동 : 3위 → 3위, 환경 : 23위 → 23위

※ (순위 하락) 네트워크 : 13위 → 14위

[표 2] 2017년 5개 부문별 COSTII 평가결과 추이(2013년~2017년)

부문	배점	한국										상대수준(%)		OECD 평균	최고국 (지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	OECD 평균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자원	7	1.635	8	1.753	6	1.773	8	1.842	6	1.943	6	33.0	24.2	1.422	미국 (5.886)
활동	7	3.460	3	3.633	3	3.673	3	3.818	3	3.665	3	74.4	42.9	2.115	미국 (4.930)
네트 워크	5	1.640	15	1.504	11	1.676	11	1.508	13	1.322	14	46.3	43.7	1.248	스위스 (2.857)
환경	6	3.072	20	2.909	25	2.921	24	2.633	23	2.570	23	67.1	74.3	2.845	네덜란드 (3.832)
성과	6	1.820	10	1.787	11	1.848	9	1.876	10	1.939	9	56.4	46.1	1.586	아일랜드 (3.439)

주) 배점은 각 평가 부문별 지표수와 동일, 지수는 COSTII의 평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화지수, 상대수준은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한국의 수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17.12

4. 부문별 평가결과

❖ 자원

- 자원 부문 순위는 6위이며, 전년도 순위를 유지함

○ 자원 부문 순위와 지수 상승은 인적자원 항목의 지수 상승(1.480점→1.587점)에 기인

- 인적자원 항목 순위는 7위로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2015년 10위 → 2016년 9위 → 2017년 7위

- 특히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중 순위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과학기술분야 고급인력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 지식자원 항목 순위(6위)는 유지되는 등 자원 부문 순위 유지에 기여함

- 그러나 조직(7.1%), 지식자원(11.2%) 상대수준은 10% 내외로 1위국과 수준 격차가 매우 큰 상태임

[표 3] 자원 부문 지표별 순위 추이(2013년~2017년)

항목	지표	한국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적 자원	총 연구원 수	4	4	4	4	4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	5	5	5	5	3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중	22	21	24	23	22
인적자원		8	7	10	9	7
조직	미국특허 등록 기관 수	7	7	7	8	7
	세계 상위 대학 및 기업 수	10	8	8	7	8
조직		8	8	7	7	8
지식 자원	최근 15년간 SCI논문 수(STOCK)	10	10	10	10	10
	최근 15년간 특허 수(STOCK)	5	5	5	4	4
지식자원		7	7	6	6	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17.12

활동

- 활동 부문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강점 부문임

활동 부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강점영역으로 지표 순위 및 상대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음

- 특히 연구개발투자 항목은 세계 최고 수준(2위)으로 연구개발투자 총액(4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중(2위),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비 비중(2위),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1위) 등 지표 순위 및 상대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

창업활동 항목(11위)은 연구개발투자 항목(2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항목이며, 전년대비 한 단계 순위가 하락함

- 창업활동 항목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중의 순위는 최근 5년간 상승하여 해당 항목이 15위권 내외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함

※ 창업활동지수(TEA) : ('13년) 17위 → ('17년) 23위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중 : ('13년) 8위 → ('17년) 4위

[표 4] 자원 부문 지표별 순위 추이(2013년~2017년)

항목	지표	한국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구 개발 투자	연구개발투자 총액	4	4	4	4	4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중	2	2	1	1	2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	16	13	13	12	13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중	3	2	2	2	2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1	1	1	1	1
	연구개발투자	2	2	2	2	2
창업 활동	창업활동지수(TEA)	17	22	21	14	23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중	8	7	5	4	4
	창업활동	16	17	16	10	1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17.12

네트워크

- 네트워크 부문 순위는 14위이며, 전년 대비 1단계 순위 하락

네트워크 부문에 속한 3개 항목 모두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하여, 해당 부문 순위 하락을 야기

- 특히 기업 간 협력 항목(26.1%)과 국제협력 항목(5.3%)은 1위국 대비 상대수준도 매우 낮음은 물론, 전년보다 순위도 3~4단계 하락하였음

※ (순위 변화) 기업 간 협력 항목 : ('16년) 23위 → ('17년) 26위

국제 협력 항목 : ('16년) 18위 → ('17년) 22위

반면, 산·학·연 협력 항목의 경우, 상대수준이 85.6%로 평가대상국 중 높은 수준임

- 특히, 산·학·연 협력 항목의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특허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2위)을 유지하고 있음

[표 5] 네트워크 부문 지표별 순위 추이(2013년~2017년)

항목	지표	한국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산·학·연 협력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특허건수	2	2	2	2	2
	정부·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 비중	13	16	12	10	11
	산·학·연 협력	3	2	1	2	5
기업 간 협력	기업 간 기술협력(※)	24	23	23	23	26
	기업 간 협력	24	23	23	23	26
국제 협력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 수	17	18	15	14	15
	GDP 대비 (해외투자+외국인투자) 비중	20	20	22	29	28
	국제협력	20	20	20	18	22

주) (※) 표시는 설문문항으로, 2015~2017의 3년 평균치 사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17.12

환경

- 환경 부문은 5개 부문 중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23위임

○ 지원제도 항목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문화 항목은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하며, 해당 부문 순위 유지에 기여함

- 비록 순위는 유지했지만 일부 환경 부문 설문지표들의 순위는 최근 5년간 하위권 고착상태*로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

*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 ('13년) 27위 → ('14년) 29위 → ('15년) 29위 → ('16년) 29위 → ('17년) 29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 ('13년) 28위 → ('14년) 29위 → ('15년) 29위 → ('16년) 29위 → ('17년) 29위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 : ('13년) 18위 → ('14년) 20위 → ('15년) 18위 → ('16년) 21위 → ('17년) 21위

○ 우리나라는 물적 인프라 항목이 강점 영역이었으나, 올해에는 5위권을 벗어남(6위)

- 물적 인프라 항목 지표인 인구 100명당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4위), 인터넷 사용자 비중 및 유선 브로드밴드 이용료(10위→9위)는 전년과 순위를 유지하거나 순위가 향상했음에도, 상위권 평가대상국들의 지표가 개선된 것이 부문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표 6] 환경 부문 지표별 순위 추이(2013년~2017년)

항목	지표	한국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 제도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 비중	19	20	22	23	23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27	29	29	29	29
지원제도		29	33	32	31	32
물적 인프라	인구 100명당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1	2	3	4	4
	인터넷 사용자 비중 및 유선 브로드밴드 이용료	6	8	6	10	9
물적 인프라		1	4	3	4	6
문화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28	29	29	29	29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	18	20	18	21	21
문화		23	26	23	23	22

주) (※) 표시는 설문문항으로, 2014~2017의 3년 평균치 사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17.12

성과

- 성과 부문 순위는 9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순위가 상승

경제적 성과 항목은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7위→6위), 지식창출 항목은 전년 순위(18위)를 유지하며 해당 부문 순위 상승에 기여함

- 특히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2위), 연간 특허 수(4위)는 상위 5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건수(7위→4위)는 전년보다 수준이 향상되어 해당 부문 순위 상승에 기여

그러나 성과 부문 지표들의 순위는 편중이 존재하여, 성과부문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필요

-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28위),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17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33위) 등 생산성 측면에서 바라본 지표들은 하위권
- 또한, 지식창출 항목의 연간 특허 수(4위), 연간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 건수(4위) 등 성과의 양을 측정한 지표들은 상위권인 반면,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 등 성과의 질을 측정한 지표는 하위권 고착(33위)상태로 지표 간 편중이 심함

[표 7] 성과 부문 지표별 순위 추이(2013년~2017년)

항목	지표	한국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적 성과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18	20	19	18	17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	1	1	1	1	2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	29	29	29	28	28
경제적 성과		7	7	7	7	6
지식 창출	연간 특허 수	4	4	4	4	4
	연간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건수	4	6	6	7	4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	33	33	33	33	33
지식창출		16	19	18	18	1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17.12



5. 요약 및 정리

○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총 34개국 중 7위를 차지

- 신규 평가대상국인 이스라엘이 종합 3위로 나타났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강소형 국가 다수가 상위권에 포진
- COSTII 1위~5위 국가들은 일본(COSTII 4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위 5개 부문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전 부문에 걸쳐 균형있게 혁신역량을 갖추

○ 연구개발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활동 부문은 3위로 강점을 보인 반면, 연구개발 지원제도, 문화 등으로 구성되는 환경 부문은 23위로 여전히 부분별 편중이 존재함

-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 물적 인프라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효율화, 인프라 선진화 등 선도형 전략이 필요
- 반면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균형잡힌 향상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 과학문화, 연구개발 생산성 분야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개선전략이 필요



[통계표]

[표 5]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추이(2013년~2017년)

국가	COSTII(점)					상대수준(%)					순위				
	'13	'14	'15	'16	'17	'13	'14	'15	'16	'17	'13	'14	'15	'16	'17
미국	19.386	20.234	19.596	19.081	18.209	100.0	100.0	100.0	100.0	100.0	1	1	1	1	1
스위스	14.476	14.850	14.557	14.961	15.202	74.7	73.4	74.3	78.4	83.5	2	2	2	2	2
이스라엘					12.534					68.8					3
일본	13.661	14.143	13.708	13.407	12.450	70.5	69.9	70.0	70.3	68.4	3	3	3	3	4
독일	12.879	13.642	13.224	12.941	12.407	66.4	67.4	67.5	67.8	68.1	6	4	4	4	5
네덜란드	13.009	12.795	12.141	11.730	12.078	67.1	63.2	62.0	61.5	66.3	5	6	7	6	6
한국	11.866	12.539	12.531	12.322	11.440	61.2	62.0	63.9	64.6	62.8	8	7	5	5	7
스웨덴	13.236	13.188	12.372	11.361	11.314	68.3	65.2	63.1	59.5	62.1	4	5	6	9	8
덴마크	11.576	11.928	11.535	11.364	11.235	59.7	59.0	58.9	59.6	61.7	10	10	9	8	9
핀란드	12.393	12.502	12.099	11.422	10.814	63.9	61.8	61.7	59.9	59.4	7	8	8	7	10
영국	11.307	11.441	11.095	10.829	10.778	58.3	56.5	56.6	56.8	59.2	12	12	12	11	11
아일랜드	11.533	12.504	11.381	10.776	10.749	59.5	61.8	58.1	56.5	59.0	11	9	10	12	12
아이슬란드	11.686	11.122	10.571	10.111	10.648	60.3	55.0	53.9	53.0	58.5	9	14	16	17	13
프랑스	11.244	11.512	11.228	11.077	10.508	58.0	56.9	57.3	58.1	57.7	13	11	11	10	14
룩셈부르크	10.232	10.826	11.042	10.751	10.404	52.8	53.5	56.3	56.3	57.1	18	16	13	13	15
캐나다	10.314	11.288	10.950	10.559	10.278	53.2	55.8	55.9	55.3	56.4	17	13	14	14	16
노르웨이	10.421	10.615	10.147	10.000	10.056	53.8	52.5	51.8	52.4	55.2	16	17	17	18	17
벨기에	11.116	10.112	9.800	10.476	9.778	57.3	50.0	50.0	54.9	53.7	14	18	18	15	18
오스트리아	10.734	11.137	10.591	10.199	9.695	55.4	55.0	54.0	53.5	53.2	15	15	15	16	19
호주	9.721	9.506	9.118	9.045	8.828	50.1	47.0	46.5	47.4	48.5	19	19	19	19	20
뉴질랜드	8.098	8.383	8.231	8.692	8.426	41.8	41.4	42.0	45.6	46.3	20	20	20	20	21
에스토니아					7.674					42.1					22
체코	7.244	7.626	7.412	7.220	6.637	37.4	37.7	37.8	37.8	36.4	21	22	21	21	23
슬로베니아					6.433					35.3					24
스페인	7.024	7.232	6.783	6.547	6.385	36.2	35.7	34.6	34.3	35.1	22	23	23	22	25
포르투갈	6.725	6.637	6.538	6.331	6.114	34.7	32.8	33.4	33.2	33.6	24	24	24	23	26
칠레					5.987					32.9					27
이탈리아	6.323	6.669	6.348	6.212	5.953	32.6	33.0	32.4	32.6	32.7	25	25	25	24	28
멕시코	5.166	5.167	5.107	4.935	5.732	26.7	25.5	26.1	25.9	31.5	29	30	30	28	29
헝가리	6.879	7.835	7.015	6.168	5.498	35.5	38.7	35.8	32.3	30.2	23	21	22	25	30
슬로바키아	5.368	6.364	5.855	5.046	4.864	27.7	31.4	29.9	26.4	26.7	28	26	27	26	31
터키	6.123	5.705	5.874	4.565	4.827	31.6	28.2	30.0	23.9	26.5	26	28	26	29	32
폴란드	5.625	5.791	5.286	5.008	4.812	29.0	28.6	27.0	26.2	26.4	27	27	29	27	33
그리스	4.506	5.346	5.594	4.552	4.587	23.2	26.4	28.5	23.9	25.2	30	29	28	30	34
OECD 평균	9.996	10.288	9.924	9.589	9.216	51.6	50.8	50.6	50.3	50.6					

주) 상대수준은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평가대상국의 수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각년도 자료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 호수 : 2017년 제30호

발간물 명 :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자 혹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6775 서울시 서초구 마방길 68(양재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 혁신정보분석센터
Tel. 02 589 5243 Fax. 02 589 2244